

“예산폭탄 성사시키려면 충분히 준비해야”

■ 김무성 대표 순천대서 시민들과 간담회

순천대 의대 유치·공단 외상센터 설립 등

지역현안 사업 현실성 있는 대안·방법 주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성 있는 대안과 방법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순천대에서 가진 순천대 의대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에서 “학교 측의 준비가 너무 실망이 크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대표는 “의과대학 설립은 순천만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원하고 있고, 같은 전남인 목포에서도 훨씬 오래전부터 원하던 일”이라며 “너무나 막연하게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전남에 온 것은 거짓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라고 전제한 뒤 “순천대에서 어려운 현실을 놓고 연구를 한 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와 그 해결방법이 있으면 추진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설립 문제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이 문제는 여당 대표가 약속한다고 절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의과대학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순천과 여수·광양 등 인근에 공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산업재해와 관련한 외상센터 우선 설립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조언했다.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와 여당에 감정적으론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안되면 정책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아직 진척된 게 없으니 저와 함께 대안을 찾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민들은 순천대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사실상 김 대표와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순천이 고향인 인요한 연세대 교수는 “이제 순천대 의대 설립 문제는 이정현 최고위원의 신뢰문제”라며 “근속스럽겠지만, 순천에서 동서화합의 물꼬를 튼 만큼 새누리당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 시민 대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순천대 의대 설립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정현

의원을 뽑아준 것은 지역구도 타파도 있었지만, 이 의원이 집권여당의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지방공단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배후지원 기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은 순천과 광양, 여수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GDP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곳인 만큼 앞으로도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정원박람회장 방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4일 오전 조중훈 순천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순천정원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교황 방한 정치권 반응

여 “화합·통합정치 계기로” 야 “세월호 정국 풀 기회로”

여야 정치권은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환영하고 그의 방한이 상처받은 이웃에게는 큰 위로가, 정치권에는 화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새누리당은 교황 방한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도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교황의 방한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환영 드린다”면서 “교황이 방한 기간에 소외된 이들을 어루만지고 평화와 화해 메시지를 전할 예정인데 우리 정치권도 교황의 뜻을 본받아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권이 권을 내려놓은 빈자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방한이 대한민국이 화합하고 한 반도에 평화가 깃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 교황의 방한이 이뤄진 만큼 이를 계기로 꼬여 있는 세월호 정국이 풀리길

기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04년 교황은 아르헨티나에서 화재사고로 194명이 희생됐을 때 ‘우리는 충분히 울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막혀 있는 지금, 우리는 반성하는 심정으로 교황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대참사를 두고도 제대로 된 반성은 커녕 특별법조차 거부하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맹성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4·16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정치권이 ‘정치는 고귀한 활동이다. 공동선을 위해 순교자와 같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교황님의 무거운 가르침을 새긴다면 세월호 유족의 간절한 진상 규명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교황 방한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취임 100일 이완구·박영선 여야 원내대표 소감

이 “1000일 같은 100일” 박 “폭풍과 같은 100일”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4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모두 그동안의 일을 회고하며 조용한 100일 맞는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단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던 폭풍 같은 100일이었다”며 시련의 시간을 회고했다. 그는 헌정사상 첫 여성 원내총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파동에 묶여 중대 위기에 처했다. 7·30 재·보선 참패의 늪에 빠진 당을 추스르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면서 “7·30 재·보선선거의 공천이 가장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해서 안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뿐 재보선이 끝나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라는 난제를 맞닥뜨렸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문제는 유가족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로서 가슴이 아프다”면서 “그러나 헌법과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

를 느낀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단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던 폭풍 같은 100일이었다”며 시련의 시간을 회고했다. 그는 헌정사상 첫 여성 원내총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파동에 묶여 중대 위기에 처했다. 7·30 재·보선 참패의 늪에 빠진 당을 추스르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면서 “7·30 재·보선선거의 공천이 가장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해서 안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뿐 재보선이 끝나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라는 난제를 맞닥뜨렸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문제는 유가족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로서 가슴이 아프다”면서 “그러나 헌법과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승용 “노후 주암댐 도수터널 붕괴 우려...안정화 사업 절실”

예산 90억 반영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14일 “전남 동부권 70만명의 여수국가산단의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주암댐 도수터널이 노후화와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안정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내년

도 사업예산 9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미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주암댐은 도수터널(연장 11.5km)을 통해 주암조절지점으로 용수를 보내는 방식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여수, 순천시 등 전남 동부권지역에 하루 54만㎡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주암댐 도수터널은 1990년 통수 이후 낙산사고가 발생해 보수·보강공사를 시

행하였지만 터널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터널 수문을 항상 개방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터널 내의 물을 빼고 정확한 안전 진단을 통해 적절한 보수·보강을 해야 하지만 용수공급 차질 및 붕괴 유발 등의 우려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 의원은 “만일 도수터널의 붕괴사고

발생으로 용수공급이 중단될 경우 전남 동부권 70만 주민의 식수가 중단되는 것과 함께 여수 국가산단의 가동 중단으로 하루에 약 18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국가 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매우 심각하고 이는 곧 국가 재난 상황에 해당할 것”이라며 기재부에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201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9기)	광주교육대학교(10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후반 2014. 9. 5(금) 08: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4. 9. 5(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9. 6(토) 08: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9. 6(토) 14:10 (특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4. 9. 1(월) 14:10 (초급반) ·월. 목. 야간반 2014. 9. 1(월) 19:00 (중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4. 9. 4(목) 08: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9. 6(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4. 8. 1(금)~9. 6(토)	2014. 8. 1(금)~9. 6(토)
수업기간	2014. 9. 5(금)~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4. 9. 1(월)~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가능 ·각 전문대학 겸사 수련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법과 후 교육장사 수련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부특기회 부여)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가능 ·각 전문대학 겸사 수련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법과 후 교육장사 수련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부특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e.ac.kr/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금리는 낮게 ↓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1. 전형일정 ■ 원서접수: 수시모집 2014. 9. 6(토) ~ 9. 18(목)
정시모집 2014. 12. 19(금) ~ 24(수)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2. 모집학과 및 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신 학 과	30	12	
	국제한국어교육원학과	5	-	
사 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2	2	
사 범	유 아 교 육 과	17	3	
예 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첼로, 관 현악기반, 플루트/사기타, 오보에, 작곡, 교회음악)	10	5	
	실 용 음 악 학 과 (드럼, 기타, 베이스, 보컬, 댄스, 복소문, 작곡, 미디어영상, 생애송라이터 등)	15	-	
총 계		99	22	

2014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1.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4. 8. 18(월) ~ 8. 25(월)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음악학과(M.A.)

2. 모집학과 및 인원

대 학 원	학위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 학 과(Th.M.)	○
		신학연구학과(M.A.T.)	○
		음 악 학 과(M.A.)	○
신학대학원	석사	신 학 과(M.Div.)	○○
교육대학원	석사	교 육 학 과(M.Ed.)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입학이 있는 대학·방송을 주는 대학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왕산동23로 36